

중동 및 튀르키예 관광시장 동향 ['26. 8월]

□ 관광전략 및 정책 동향

- (UAE) 세계정부정상회의-WTTC, 미래 관광정책 공동개발 협력
 - UAE 세계정부정상회의기구(WGS)와 세계여행관광협의회(WTTC)는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정부·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
 - 양 기관은 세계정부정상회의를 활용하여 관광정책 대화, 공동 연구·보고서 발간, 국제 모범사례 공유 및 관광산업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
 - UAE가 관광목적지 홍보를 넘어 글로벌 관광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
- (사우디아라비아) AFC 아시안컵 연계 스포츠관광·통합 방문서비스 구축
 - 사우디는 2027년 1월 개최되는 AFC 아시안컵을 엑스포 2030과 FIFA 월드컵 2034에 앞선 관광·교통·숙박 인프라 종합시험 무대로 활용할 계획
 - 공식 관광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·호텔·경기 입장권을 결합한 패키지를 판매하고, 대상 시장에는 여행사를 통해 비자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'패키지 비자'를 적용할 예정
 - 비자, 항공, 숙박, 교통 및 경기장 출입정보를 단일 디지털 신원으로 연계하는 'Ahlan' 플랫폼과 AI 기반 다국어 관광안내·혼잡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

□ 비자 및 항공 동향

- (UAE) DXB 상반기 여객 31.3% 감소, 하반기 회복세 기대
 - 두바이국제공항(DXB)의 '26년 상반기 여객은 3,1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4,600만 명 대비 31.3% 감소했으며, 항공기 운항 횟수도 15만 600회로 32.1% 감소
 - 이란 전쟁에 따른 영공 제한과 국제항공사의 운항 중단이 주요 원인으로, 전쟁 이전 약 1억 명으로 설정했던 연간 여객 전망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
 - 다만 에미레이트항공의 운항능력이 약 90%까지 회복되고 노선 공급이 점진적으로 복원되면서 전통적 성수기인 하반기에는 여객과 관광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

○ (UAE) 에미레이트항공, 정세 불안 대응 예약변경·보험 보장 강화

- 에미레이트항공은 8월 10일부터 두바이행 승객에게 운임등급과 관계 없이 횡수 제한 없는 무료 여행일자 변경을 허용하고, 환불 수수료도 이코노미 기준 25~50달러 수준으로 인하
- 전쟁·분쟁 상황에서 최대 2만 5,000달러의 의료비와 최대 30일의 체류 연장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을 27개국에서 판매하고, 영공 폐쇄 등으로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대체편을 제공
-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약 지연을 완화하고 두바이행 국제 관광수요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안정화 조치임

○ (GCC) 역내 항공망 복원에도 유럽·아시아 항공사 운항 정상화 지연

- 중동 국적항공사들이 바레인·쿠웨이트 등 GCC 역내 노선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있으나, 다수 유럽·아시아 항공사는 중동노선 운항 중단을 가을 이후까지 연장
- 루프트한자그룹과 KLM은 두바이·리야드 등 일부 중동노선을 10월 24일까지, 영국항공은 두바이·바레인 노선을 10월 25일까지 중단할 계획이며, 싱가포르항공과 캐세이퍼시픽도 두바이 운항 중단을 각각 10월 24일과 25일까지 연장
- 역내 항공 연결성은 회복 중이나 장거리 주요시장발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GCC 관광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겨울 성수기 항공편 복원 여부에 좌우될 전망

□ 아웃바운드 여행 동향

○ (GCC) 정세 완화에 따른 여행심리·관광시장 회복 기대

- 미국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 이후 철수·감축했던 중동지역 공관 인력을 8월 마지막 주부터 단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임
- UAE·사우디·카타르 주재 공관은 기존 정원의 약 85%, 쿠웨이트·바레인인 약 75% 수준까지 인력을 복귀시키고, 이스라엘·오만·요르단 공관은 장기적으로 정상 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
- 공관 정상화는 전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나, GCC 역내 항공노선 재개와 함께 지역 안정성에 대한 대외 신뢰 및 겨울 성수기 관광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

- (튀르키예) 상반기 해외여행객 15% 증가, 비자 제약 없는 목적지 선호 확대
 - '26년 상반기 튀르키예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약 6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% 증가했으며,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3.1%, 16.5% 증가
 - 이집트·두바이·멕시코·남미 등 비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목적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, 생зен지역은 비자 발급뿐 아니라 신청 예약 자체가 어려워 유럽여행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함
 - 튀르키예 아웃바운드 시장 확대와 비유럽 목적지 선호는 직항 접근성을 갖춘 한국에도 기회요인이지만, 한국 비자 발급 편의성과 현지 여행업계의 상품 유통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

- (이스라엘) 종교·친이스라엘 수요층 중심 단계적 관광 회복 추진
 - 이스라엘 관광부는 항공편 공급 개선을 전제로 '26년 외래관광객 200만~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, 미국 북음주의자와 유대계 시장을 대상으로 신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
 - 기독교 성지순례 수요를 핵심 회복시장으로 선정하고 AI 기반 성지순례 일정설계와 북미시장 특화 마케팅을 확대
 - 다만 여행경보와 안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전면적 시장 정상화보다는 종교·친이스라엘 수요층을 우선 공략하는 제한적 회복전략으로 판단

※ 출처: UAE Government Media Office(u.ae/en/Media), (www.arabnews.com, www.khaleejtimes.com, www.gulfnews.com, www.thenationalnews.com 등)현지 정부·언론자료 종합